

기본신앙교육자료 《 말 씀 》

「한 편의 시」‘말씀’ 중에서	8
「한 편의 시」 만물의 글	10
1. 말씀의 가치성	11
1) 말씀은 하나님이다	11
2) 말씀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이다	11
3)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	12
4)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12
5) 진리의 근본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13
6)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이다	14
7)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14
8) 말씀은 종교 역사의 핵심이다	15
9) 말씀을 세워야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을 세워야 사탄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	16
10)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변해 버린다	16
11)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자를 찾으신다	16
2.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18
1)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18
2)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라	18
3)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고 축복해 주신다	19

4)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긴다	19
5)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19
3. <말씀>에 대한 비유	21
1) 말씀은 무기요, 못성벽이다	21
2) 말씀은 음식과 같다	22
3) 말씀은 불이다	22
4)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23
5) 말씀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물과 같다	23
4.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좋은가?	25
1)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한다	25
2)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25
3) 말씀에 의해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고 차원도 높인다	26
4) 말씀으로 휴거를 이뤘다	26
5) 말씀으로 각종 모순들을 자른다	26
6) 복음으로 형통한다. 영생길이다	27
7) 복음은 표적을 일으킨다	27
8) 말씀을 들을 때 육과 영 신앙의 병이 치료 된다	28
9) 말씀이 끊어지면 축복도 끝난다	28
10)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28
5. 말씀의 능력, 권세와 위력	30
1) 하나님은 말씀으로 도우신다	30
2)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30
3) 말씀을 중신했기에 환난 때 마음을 잡고 흠어지지 않았다	31

4)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이다	32
6.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고 말씀만 해주시나?	34
1) 말씀이 생명이다	34
2)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34
3)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말소리로 본 것이다	34
7.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36
1)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36
2)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36
3) 말이 통하는 자, 택한 자	37
4)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37
5) 사탄, 악한 자, 악평을 이기고 따르는 자들	37
8.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	39
1)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말씀을 하셨다	39
2) <말씀의 차원>에 따라 육도, 영도 변화된다	40
3)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신다	41
4) 섭리사의 말씀이 위력 있는 이유	41
5) 이 시대 최고 위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 부활, 영 재림>이다	42
6)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	42
7) 이 시대 말씀 듣고 행해야 이 시대 부활이 된다	43
8)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간다	44
9) 하나님의 진리이니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44
9.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	46

1) 항상 자기에게 한 말씀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	46
2) <말씀>을 ‘흥분 상태’에서 듣고 행해야 된다	47
3) 설교를 하나님의 묵시를 듣는다고 생각하며 들어야 된다	47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신앙을 잘 하는 자다	47
5) 비유로 하신 말씀의 말귀를 잘 알아 들어야 한다	48
6) 말씀을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	49
7) 설교 듣기 전에 성경을 많이 자세히 읽어야 된다	50
8) 말씀을 귀히 듣고 행해야 한다	50
9)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간절해야 한다	50
10) 행하면서 배워야 한다	51
11) 말씀을 배웠어도 거둬서 배워야 한다	51
12) 말씀을 정확하기 ‘받기, 전하기, 이해하기, 실천하기’	52
13)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해 둔 것을 보아라	52
 10. 말씀 잘 가르치고 전하기	 54
1)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54
2) 시대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게 가르쳐야 한다	54
3) 말씀을 전할 때 두가지 방법	54
4) 강의도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	54
5) 예수님 설교법	55
6)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전해야 한다	56
7)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니 설명과 증거를 잘 해야한다	57
8) 어떻게 구상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57
9) 말씀을 정밀하게 가르쳐라	58
10) 말씀의 주인의 입이 되어, 사명감의 갑옷을 입고 가르쳐야 된다	58
11) 자세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58

12) 행해야 가르쳐 주신다	59
11.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여라	60
1) 말씀을 행할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60
2) 말씀을 들으면 잊지 말고 매일 지켜 행해야 한다	60
3)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60
4) 말씀의 체질화 생활화	61
5)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만큼 변화된다	62
6) 말씀으로 답을 알았으면 즉시 해야 된다	62
7) 말씀대로 해야 그것이 답이다	63
8) 말씀을 듣고 행해야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	63
9) 말씀도 계속 행해야 차원이 높아지게 된다	64
12. <성경>에 대하여	65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65
2) 성경은 하나님의 ‘뜻’‘사랑’‘구원’이다	65
3) 성경은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66
4) 성경은 생명의 책이며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66
5)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으로 녹음되어있는 테이프	67
6) 성경은 목숨 걸고 고통을 겪으며 순교해 가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68
7) 성경은 한마디씩만 했다. “해라”“하지 마”	68
8)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	68
9) 성경은 자세히 세밀히 읽어야 한다	70
10) 성경을 읽어도 끝까지 읽어야 하고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	70
11) 성경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고 답이 있는 곳이 있다	70
12) 성경의 깊은 진리의 인봉을 떼는 것	71

13) 성경은 온전히 배우고 교정해야 된다	72
14)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였다	72
15) 성경 푸는 법	73
16) 성경을 외골수로 풀면 안 된다	74
17) 성경을 푼 데서 새 역사를 폼다	74
18) 성경을 허황되게 풀면 이뤄지지도 않고, 심판받는다	74
19)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75
 13. ‘성경’‘말씀’에 대한 성경구절	76
 14. 잠언에 대하여	81
1) 잠언은 삼위일체와 대화의 말씀이다	81
2) 사람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82
3) 잠언은 이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며, 교훈과 지혜의 말씀이다	82
4) 한마디 잠언 속에 천 마디가 들어있다	83
5) 잠언은 이치와 지혜의 말이요 지식의 말이다	84
6) 잠언은 문학적인 말씀이다	84
7) 잠언은 생활에서 쓰는 각종 기구와 같다	84
8)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 읽고 행하면서 보면 기쁘고 흥분된다	85
9) 새벽에 잠언을 귀히 들어야 된다	85
10) 자꾸 깊이 읽고 들어라	85
11) 말씀과 잠언을 많이 쓰고 듣고 읽어야 성공하고 승리한다	86
12) <5만 잠언> 말씀 따로, 생활 따로	86
13) 잠언으로 사탄도 악도 이기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	86
 15. <말씀> 사연과 실천	88

1)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88
2) 20년 동안 산에서 성경이 닳아 떨어지게 읽으며 배웠다	88
3) 성경, 말씀의 최고의 경력	89
4) 5300번씩 기도하며 구했다	89
5) 공적을 쌓으면서 말씀을 배웠다	90
6)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	91
7) 잠언을 받게 된 사연	92
 16. <월명동>과 말씀	93
1) 오직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기	93
2)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연결시켜 사연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93
3) 말씀을 듣고 행하여 차원을 높여야 된다	93
4)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표적이다	95
5) 말씀을 볼 때는 축소 확대이다	95
6)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96
7) 두 개의 보물	96

「한 편의 시」 ‘말씀’ 중에서

전능하신
주하나님
그말씀이
그얼마나
권세있고
위대한지
너는아냐

말씀받은
사람들이
신이된다
말씀으로
악인들을
초개같이
불사르고
지구촌에
그무지한
민족들의
악명높은
주권자도
시체덩이
되게하여
황천객이
되게하여
지옥사자
잡아가게
해버린다

전지전능
하나님의

그말씀을
선포하니
바다밑물
오다가도
멈춰서고
갈길잃고
그말씀을
듣고있다

「한 편의 시」 만물의 글

하나님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르칠 것
너무 많고 많도다

시대마다
하늘의 스승들을 보내어
허가 닳도록 가르쳐도
못 다 가르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로 보여 주시며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생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니
만족하도다

1. 말씀의 가치성

1) 말씀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목적대로 살게 하십니다.

◆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육이 되어 행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면,

성령이 우리 육과 동행하시며 함께 행해 주십니다.

◇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 때, 자기 계획을 행하는지,

누구의 말씀을 행하는지 알면서 행해야 합니다.

전능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도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행하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시킨 일을 행하면서 시킨 자와 함께 행해야 시킨 자가 함께하시어,

최고의 방법으로 행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만 원하는 것을 얻고, 행하지 않는 자는 전혀 모릅니다.

2) 말씀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이다

지금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이 시대에 따라 그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신부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함이다.

이것을 모두 깨달아라.

- ‘말씀을 받는 것’ 도 사랑이다.
-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해 주신 것’ 도 사랑한 것이나 똑같다. 고로, 영적 사랑이다.
- ‘전도’ 하여도 그것이 사랑이다.
- ‘생명의 말씀’ 을 전해 줘도 그것이 사랑이다.
- ‘시대를 증거’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다.
- ‘생명 관리’ 하는 것도 큰 사랑을 하나님과 성령께 받는 것이다.

3)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 세상에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생명 값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육도 형통하고,

그 영과 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황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4)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 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 을 이룰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권세>를 생명시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대의 뜻’을 펴야 된다.

9.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시대 복음의 역사’가 더욱 표적을 보인다.

10. <말씀>을 굳건히 배워야, ‘그릇된 자들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긴다.

11. <온전한 말씀에 서지 않은 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지난날의 행함’도 흔들리고, ‘현실’도 흔들리게 되나니,
주인은 <뿌리 없는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베어 버린다.

◇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시고, 우리는 갈 길을 잃었다.
이제 말씀도 못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모두 가슴이 미어지고, 피가 심장에서 끓었고, 이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 하며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므로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육신도 사망권에 있지 않고 생명권에 살게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도, 그 말씀은 메시아의 말씀이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5) 진리의 근본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시다.

인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한 가지 도를 깨닫기도 어렵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 깨달을 뿐이지 진리의 주인은 될 수 없다.
진리의 근본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6)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이다

‘성경 말씀 중에 자기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자는 깨닫고 기뻐하며 숨겨 행하여 자기 것을 만든다.

<말씀>이 ‘금은보화’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금은보화를 얻듯’ 얻게 됩니다.

7)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온 세상과 영의 세계에 한 분밖에 없는 절대 유일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1. 아무리 생명이 죽음에서 사는 귀한 말씀이라도, 생각에서 잊으면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죽게 되나니, 생각에서 잊지 말고 지키려고 결심하고 정녕코 행해야 되느니라.
2. 말씀을 지킬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3.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잘못은 온 세상 사람들이 와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켜 행해야 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

개하여 해결해야 된다.

4.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그대로 된다.

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어다. 그가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것이다.

8) 말씀은 종교 역사의 핵심이다

〈건축 설계〉를 완전하게 해 놓고, 〈건물의 틀〉을 완전하게 짜 놓아야,
‘그 틀대로’ 건물이 완전하게 세워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정확해야,

‘그 뜻대로’ 행해서 개인이나 섭리역사의 ‘신앙의 건물들’을 완전하게 세우게 된다.

〈말씀〉은 ‘종교 역사의 핵심’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 성령님, 성자’ 이시며,

〈말씀〉이 ‘인생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며, ‘영혼의 양식’이다.

그런데 저 기성의 목사들을 보면, 설교할 때 ‘하나님을 중심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러다 결국 ‘우매한 자들’이 되었다.

◇ 〈말씀〉은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 〈믿음〉이 ‘행함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과 행함의 기준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 섭리역사는 <말씀>이 ‘핵’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모두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해 줍니다.

9) 말씀을 세워야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을 세워야 사탄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

무엇으로,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요?

<그 터전>은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은 무엇으로 나오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워야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을 바로 세워야 ‘온전한 영적 사랑’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세워야 사탄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번창하게 됩니다. 아멘!

10)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변해 버린다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변해 버립니다.

절대 진리는 영원합니다.

섭리사를 따라오다 배신하고 불신하고 나간 자는

그동안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은혜에만 빠진 것입니다.

은혜는 살 같아서, 은혜의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진리는 뼈 같아서, 그대로 변치 않습니다.

11)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자를 찾으신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생각>이 맞고, <말씀>이 맞아서 같이 살 수 있다.
3. 하나님과 <생각>과 <말씀>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언어>가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
4.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같이 산다.
5.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된다.
6.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자>를 찾으신다.

2.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1) 진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18. <귀한 한 도(道)>는 ‘육신 일생 써야 하는 가치가 있는 진리’ 다. 매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써야 된다.

19. <귀한 진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받았든지,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든지, 사랑하여 선물로 받았든지 정말 귀하게 여겨라.

20. <진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물’ 이다. 보물만이 보물이 아니다. <자기를 구원시키고 복되게 하는 귀한 진리>가 ‘일생 동안 귀하게 여길 만한 보물’ 이다. <도(道)>는 정말 귀한 것이다.

21.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어 깨닫게 하신 진리>는 ‘영원한 가치’ 가 있으니, 1조 10조 100조 1000조의 돈에 비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 육신 일생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해 주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게 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는 ‘귀한 보물’ 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라

◇ 하나님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다가 결국 타락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 1600년 동안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600년 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사는 지역의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여덟 식구가 홍수 심판 때 배를 타고

다섯 달 동안 심판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3)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고 축복해주신다

-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 <말씀>이 곧 ‘하나님’ 이고 ‘예수님’ 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만큼’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아는 만큼’ 함께하며 사랑해 주십니다.
- <말씀>에 따라
 - 구약의 종이 되기도 하고,
 - 신약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 이 시대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시대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
<삼위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됩니다.

4)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뺏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음을 뺏기게 된다.
섭리인들 중에는 시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뺏긴 자들이 많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전하지 않게 되고,
타인에게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음을 뺏겨 잊어버리고 산다.

5)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와 일체 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면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

사탄과 귀신과 악한 자들이 틈을 타서 역사하여 그들과 일체 되게 됩니다.

3. <말씀>에 대한 비유

1) 말씀은 무기요, 낯성벽이다

말씀은 전쟁터의 무기입니다.

그 순간 그 시대 말씀을 못 들으면 사탄과 귀신의 주관권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지한만큼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적을 총으로 탕탕 쏘죽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세계에서는 총이 말씀이고, 기도는 총알입니다.

말씀이 무기요, 말씀이 원자탄이요,

말씀이 총이요, 말씀이 중장비요, 말씀이 자기의 낯성벽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섭리역사도 발달된 영적 무기를 써야 됩니다.

시대 무기가, ‘시대 말씀’입니다.

성경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좌우에 날 선 예리한 검’입니다.

그만큼 세밀하고 정교하며 예리합니다.

고로 <말씀>은 ‘혼과 영, 생각과 골수’ 까지 찢어서 쪼개고,
‘마음과 생각’ 을 판단합니다.

2) 말씀은 음식과 같다

말씀은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전도의 일, 관리의 일을 해야 되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해당되는 일,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발이 되어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와서 행할 수 있습니다.

◇ 말씀은 마치 육신의 양식같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육의 음식과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말씀을 안 들으면 바로 영이 힘이 없고 쓰러집니다.

환난을 이기고, 영과 정신과 혼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꼭 들어야 됩니다.

◇ 예수님은 “말씀이 너희 육신의 별미, 떡과 같다.” 하셨습니다.

말씀은 진수성찬과 같습니다.

꿈에서 진수성찬을 먹은 것은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해서 보여 준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으로도 보여 줍니다.

<말씀>을 ‘무기’로 보여 주기도 합니다.

3) 말씀은 불이다

◇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가지고 심판하러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사 66:16)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륙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러나 하나님은 신약 때 ‘영’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그 육을 쓰고 불과 칼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온다는 자는 예수님으로,

그가 ‘불과 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외치며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때가 왔을 때 되어진 대로 예언을 풀어야 되고,
실제 이루어진 대로 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성경 구절대로 <말씀>을 ‘성령의 검’ 이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을 ‘불’ 로 비유하셨습니다.

(눅 12: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4) 말씀이 생명의 길이다

14. <말씀>이 ‘생명의 길’ 이다.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행하면
이상세계를 맞게 된다. 밤이 가면 반드시 낮이 오듯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는 것은 확실하다.

15. <하나님의 예정된 뜻>대로 하면,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승
리했다. 과거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들의 편이 되
어 함께 살고 계시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행하여라.

말씀은 길과 같다.

말씀이 끊어지면, 갈 길을 잃어버린다.

5) 말씀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물과 같다

• <깨끗하게 하는 것>같이 기쁘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여름철에 깨끗이 씻으면 시원하고 좋듯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정말 기쁘고 좋다는 것을 모두 압니다.

• 여러분, 씻을 때 무엇으로 씻죠? - ‘물’ 로 씻어 냅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삼위의 말씀>은 ‘물’ 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만

육신의 행실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혼도, 영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좋은가?

1) 말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한다

-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셨다. 3일 동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들은 노아 홍수심판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의 영들이었다.
〈예수님의 영〉이 영계의 옥에 가서 이들을 만날 때까지 무려 24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옥에서 나온 영들〉은 ‘신약 주관권의 영’이 되어 해방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옥에서 나오지 못한 영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말씀〉이 ‘생명 역할’을 하니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바로 나온다.
- 〈예수님이 영계에서 3일 동안 전하신 복음〉은
‘영계에서 복음을 들은 영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됐고,
〈예수님이 육계에서 3년 반 동안 전하신 복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파되어 왔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영계에서도 ‘옥에 갇힌 자들’이 나오게 됐고, 육계에서도 ‘사망권에 있는 자들’이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됐다.

2)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말씀〉을 전해 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표적’을 낳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최고 큰 표적’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권세>를 생명시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대의 뜻’ 을 펴야 된다.

3) 말씀에 의해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고 차원도 높인다

- ◇ ‘말씀’ 에 의해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고, 차원도 높입니다.
- ▷ 신약의 말씀을 들으면 종으로 대하던 자를
‘아들딸, 자녀’ 로 대하시고
- ▷ 이 시대 말씀을 들으면 자녀급으로 대하던 자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 같이 대해 주시게 됩니다.

4) 말씀으로 휴거를 이뤘다

섭리인들 모두 복음의 말씀을 뺏기지 않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휴거를 이루고, 삼위와 주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됐다.

이제 부지런히 시대 복음을 전해줘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 복음의 사명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해야 된다.

5) 말씀으로 각종 모순들을 자른다

8. 칼이 무디면 무엇이든 잘라지지 않듯이, <생각>이 무디고 무의식 상태이면 무딘 칼과 같아서

‘자기 모순, 죄, 잘못된 삶’ 이 끊어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는다.

9.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 하다. 그 말씀을 받고 행하면

‘불의’ 를 자르고 ‘세상’ 을 자르고 ‘확실한 삶’ 이 이루어진다.

10. <생각>을 ‘칼날’ 같이 예리하게 세워라.

11. 왜 자기 잘못된 습관과 성격을 못 고치느냐.

칼이 무딘 것같이 <생각>이 무디니 자르지 못하는 것이다.

12. <시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예리한 칼’과 같아서, 자기중심의 생각, 말실수, 각종 모순들을 예리하게 깨닫고 즉시 자른다.

못 자르니 사탄이 끌고 가고, 사람들이 보고 즉시 알아챈다.

6) 복음으로 형통한다. 영생길이다

8. 복음을 전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한다.

9. 복음이 영원한 영생길이다.

10. 모든 자들은 실상 복음을 기다린다.

11. 복음을 생명시해야, 믿게 되고 뺏기지 않는다.

12. 성령의 말씀을 뺏기면, 그에 해당되는 것도 뺏긴다.

7) 복음은 표적을 일으킨다

복음은 항상 신기한 표적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복음을 생명시해야 신기한 표적이 일어난다.

섭리사에서 권세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면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 <말씀>을 전해 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을 구원하는 표적’을 낳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최고 큰 표적’입니다.

8) 말씀을 들을 때 육과 영 신앙의 병이 치료 된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료됨을 믿어라.
말씀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말씀에 순종해야 신앙의 병이 고쳐집니다.

9) 말씀이 끊어지면 축복도 끝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종의
몸에서 구원해 준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 불평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끊어 버리니 그들은 이상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
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시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인
이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니 육적인 축복도, 신앙의 축복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원망한 자들, 악평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악한 자와 악평을 다 이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계속 말
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가나안 복지, 천 년 역사에 들어와 살게 해 주십니다.

10)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함과 같이,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를 알면 사탄이 묶어 놓지 못합니다. 고로 자유롭습니다.
신약 말씀이 진리로, 구약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했고,
이 시대 말씀이 진리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녀 법에서 벗어나 신부 법으로 살게 되니
우리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이 시대 사랑의 진리 법에 굴복시켜
완전히 믿고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열린다.” 했습니다.

(골 1:5-6)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5. 말씀의 능력, 권세와 위력

1) 하나님은 말씀으로 도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 이요, ‘능력’ 이요, ‘권세’ 입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자의 말>이니, 절대 믿고 행해야 됩니다.

어떤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 살 자인데
말씀으로 오게 하여 빛에 속해 영원토록 살게 하셨고,
어떤 자는 구시대 기성에서 믿는 자인데
시대 복음으로 택하여 오게도 하셨고,
또 어떤 자는 우상을 섬기거나
각종 어두운 주관권에서 살던 자인데
천 년 하나님 시대의 약속한 목적을 이루려
말씀으로 택하여 오게 하셨습니다.
고로, 이 귀한 것을 생명시해야 됩니다.
이 복음,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자기의 영원함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실천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된다

1.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그 시대에 존재하던 천지만물들’ 이 없어졌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2. 누가복음 21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설교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징조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것이다. 미혹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37년 후에, 주후 70년에 <유대인과 로마와의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온 세상이 그 말씀대로 되어 버리나니, 말씀의 위력이 이같이 크고도 큰 것을 깨달아라.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하가 뒤집어진다. 사탄과 악한 자와 거짓된 자들의 말은 공포심만 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게 들어 버리신다.

4.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그대로 된다.
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어다.
그가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것이다.

-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지구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의 주권자들>이 이리저리 계획하고 선포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되어 버립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이 그 영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을 믿어도 외식과 형식으로, 자기중심으로 믿은 자들>은 그 육도 영도 행위대로 ‘사망’에 속해 살게 됩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을 이기게 하고, ‘사탄과 귀신과 마귀와 악한 자들’ 까지 다 이기게 하고,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합니다.

3) 말씀을 중신했기에 환난 때 마음을 잡고 흠어지지 않았다

◇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해 주는데도

각종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그 시대에 오는 고통, 당세에 오는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말씀’을 중심했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잡고 흠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였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져 나갔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수십 년, 수백 년, 2000년이 흐르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대적, 민족적, 세계적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복음의 역사는 지구 세상을 덮고 뜻을 이루었습니다.

◇ 절대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살면

그 무시무시한 사탄과 인사탄도,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 그 어떤 친한 자들의 말이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말씀〉에 확실하게 서서 행해야,

육도, 혼도, 영도 표가 나게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누가 그릇되게 말해도 안 속고 굳건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 것이다

◇ 영과 대화하기입니다. 깨닫고 대해 주기입니다.

모르면, 평생 모르다 죽습니다. 아는 자만 압니다.

행치 않으면 그냥 있듯이

옆에 와도 모르면, 그 역시 영이 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아는 자가 신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진리를 받으면 신이 됩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그 귀한 것을 가르쳐 줘도 행치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아깝습니다.

6.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다.

7.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성령님의 말씀을 받은 자도 그 면에서 신이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았으니,

모두 ‘영적인 자들’ 이 되어서 ‘영적 사랑, 신적 사랑’ 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의인들’ 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시고 말씀만 해주시나?

1) 말씀이 생명이다

나 하나님을 안 보고 내 할 말을 해 주는 것을 듣는 것이
나의 얼굴과 영의 몸을 보기만 하고 말 한마디 안 듣는 것보다 낫다.
보여 주면, 말씀 집중 안 한다. 생명시 안 한다. 보는 것을 중심한다.
너희들도 사랑하는 자와 만나면 그러지 아니하나.
나의 말을 생명시하며 들어라. 말씀이 생명이다. 영의 양식이다.

2)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경을 보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격입니다.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 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는 자’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보는 자>는 ‘성령님을 보는 자’ 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만물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보고
만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로써 계시를 하는 것입니
다.
<성경>을 보면 ‘성경으로 계시’ 하고, <시대 말씀>을 보면 ‘말씀’ 으로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 하실 말씀을 해 주시
며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3)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말소리로 본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말소리로 본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려오고 느껴져 옵니다.
하나님은 대화 조건이 절대 되어야만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새겨들으면 하나님을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7.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1)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특별한 때가 아닌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14. 사람들끼리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밑에 있는 자가 먼저 말을 해야 짧게라도 대답하고 대화한다.

15. 사람과 통하려면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듯이 해야 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또한 사람들이 보는 ‘만물’을 보이시며 깨닫게 하신다.

16.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야 자신의 뇌도 생각도 ‘전달받을 여건’이 된다. 고로 하나님은 ‘깨달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때마다 전달하실 것을 전달하신다.

3. 구약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라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종같이 가까이 대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진리였다.

4. 신약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셨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종같이 대하던 자들을 자녀같이 대해 주고 사랑해 주시며, 그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구원해 주시는 진리였다.

2)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신부의 권세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 말씀을 주어서, 지켜 행하게 하여 그 목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일체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 말이 통하는 자, 택한 자

하나님이 영이고 예수님이 영인데, 직접 외치고 다니시겠느냐?

그러면 누가 보고 알아주겠느냐.

그래서 말이 통하는 자,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다.

4)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5. 행해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언(無言)하신다.

6. 하나님도 성령님도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행하는 자〉를 ‘자신의 육신’으로 삼고,

〈삼위의 생각과 마음〉이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5) 사탄, 악한 자, 악평을 이기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을 중의

몸에서 구원해 준 모세를 원망하고 불만, 불평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모세를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끊어 버리니

그들은 이상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시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인 이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끊어지니 육적인 축복도, 신앙의 축복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원망한 자들, 악평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악한 자와 악평을 다 이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 가나안 복지, 천 년 역사에 들어와 살게 해 주십니다.

8.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

1)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새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시대의 정한 기간이 끝나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한 기간까지 그 주관권에 살게 하고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새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고역 기간 400년이 차야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출 12:40-4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 삼십년이라 사백 삼십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때의 삼위>이시니라.

<삼위>는 ‘때’에 따라 행하시나니,

<때를 지키는 자>는 삼위를 만나게 되고 삼위와 동행하게 되리라.

•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선지자들>을 통해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각종 죽을 고비>에서 살려 주시고, <전쟁 때> 같이 싸워 이기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 <말라기 선지자 후 400년 동안>은 ‘무(無) 선지자 기간’으로

신앙의 잠을 자는 기간’이었습니다.

모두 신앙이 죽어서 잠을 자다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며 생명의 역사를 펴시니, 모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며, <부활의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같이 행할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표적의 일들’이 일어나니, 그때 <전능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2) <말씀의 차원>에 따라 육도, 영도 변화된다

- <말씀의 차원>대로 <육>도 <영>도 형성되고 만들어집니다.

-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때는 <종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였고,

신약 때는 <자녀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약 때는 <신부급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게 하십니다.

-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따라 <육>도 변화되고,

<영>도 ‘그 모양과 형체’가 변화되고 만들어집니다.

- <구약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구약급의 모양과 형체’로 만들어지고,

<신약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신약급의 모양과 형체’로 만들어집니다.

<성약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성약급의 모양과 형체’로 만들어집니다.

- <영계>에 가 보면, ‘영의 모양과 형체’를 보고

‘구약인’인지, ‘신약인’인지, ‘성약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육계>에서는 ‘말’과 ‘행실’을 보고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말씀>으로 인해 <영>이 영원히 살게 되고,
<말씀의 차원>에 따라 <영>이 ‘구약 종급 천국’에서 사느냐, ‘신약 자녀급 천국’에서 사느냐, ‘성약 신부급 황금천국’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느냐 - 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3)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신다

1.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영으로 다시 오셨다.
영으로 다시 오신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자랑거리이자 큰 힘과 위력이다.
2. 신약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행하신 것과, 이 시대에 영으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행하시는 것 두 가지를 믿어야 두 겹줄이 되어 튼튼하다.
3. 예수님은 신약 때도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신다.

4) 섭리사의 말씀이 위력 있는 이유

1. 섭리사의 말씀이 위력 있고 가치 있음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가 가르쳐 주신 시대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
2. 구약 400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그 육을 쓰고 행하셨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행하겠다.’ 하셨다. 그 말씀대로 신약 2000년이 지났으니,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새 역사를 펴 나가심이 합당하다.
3.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셔서 새 시대 섭리 역사를 낳으셨다. 섭리사가 예수님이 다시 와서 행한 증거이자, 근거다.

4. 같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기성과 말씀도, 기도 내용도, 행실도 다르다.

5) 이 시대 최고 위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 부활, 영 재림>이다

◎ ‘이 시대 새 역사 최고 위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 부활, 영 재림>입니다.

• 이 시대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고,
<예수님의 육>이 된 것이다.
누구든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고,
<그 육신>이 되어 증거하고 가르쳐 나가면 ‘신부 입장’이다.
먼저는 <자기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육이 되어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이 시대에 최고로 할 일’이다.

6)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야 된다

◆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2. 하나님은 점진적인 역사를 펴신다. 시대가 발달하고 인간도 시대에 따라 크고 성장하니, 계속해서 옛날식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차원 높게 대하며 역사를 펴 나가신다.
3. 새 시대 사람들에게는 실상 구시대 말씀보다 새 시대 말씀이 필요하다. 구시대의 가르침은 구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4.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는 말씀이다. 새 시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이 현실에 원하시는 뜻을 펴 나가야 된다는 뜻이다.

5. 말씀의 차원에 따라 구원의 차원도 다르고, 지상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도 다르다.

6.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신약 역사를 이루며 갈 수 없고,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예언된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를 이루며 갈 수 없는 것이다.

7. 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말씀의 차원을 높여 오셨다. 그리고 그 새로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구시대보다 훨씬 이상적으로, 힘 있게 하나님의 뜻을 펴 왔다.

8.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새 시대를 좇으며 보다 차원 높이, 보다 이상적으로 믿고 행해야 지상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

7) 이 시대 말씀 듣고 행해야 이 시대 부활이 된다

〔 마태복음 19장 16~17절 〕

예수님이 선(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선한 자가 되어 생명권 세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은,

바로 ‘하나님’ 을 말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생명으로 들어간다’ 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사망권에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들어간다. 산 생명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 신약시대 아들이 되는 생명권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외친 신약말씀을 들어야 들어갑니다.

구약말씀을 4000년 동안 들었어도 구약을 못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약말씀을 들으니 바로 구약을 벗어나서
 신약 새 시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 시대도 이 시대 말씀 듣고 행해야,
 이 시대 부활이 되고 ‘선’ 이 됩니다.
 신약말씀은 천 번 듣고 2000년을 들어도 신약의 자녀권 말씀입니다.
 이 시대 말씀은 제대로 한 번만 들어도
 신부 시대 천 년의 혼인 잔치 안에 들어갑니다.
 시대가 기다리던 시대니,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시대를 알고 시대에 따라서 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활, 화살, 칼이고
 신약시대는 총이고,
 새 시대는 미사일, 대폭탄, 원자탄 핵무기입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8)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간다

3. 전능자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이같이 돕고 함께해 주시면 손해가 안 가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살면, 네 영혼이 영원토록 같이 사니 손해가 안 간다.” 하셨다.
4. 과수원지기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클 때까지는 막대한 투자를 하지만, 과일나무가 다 크면 열매를 따서 많이 얻기에 그때는 유익만 보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5.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시작부터 끝까지 간다. 그러므로 이 시대 말씀은 천 년 동안 간다.
6.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에 대한 말씀도 천 년까지 가는 말씀이다.

9) 하나님의 진리이니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3. <맛>보다 ‘건강’ 이다. ‘영양’ 이다.

<맛>이야 조미료를 쓰면 ‘안 좋은 재료’ 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맛있다.

4. <모양>이나 <맛>이나 <멋>은 속일 수 있어도 ‘영양’ 은 못 속인다.

<섭리사 말씀>은 ‘모양’ 이나 ‘맛’ 을 중심하지 않는다. <섭리사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는 순리의 말씀’ 이라서 이뤄지지도 않는 거짓이나 허황된 표현을 안 한다. 거짓된 말이나, 하나님 앞에 외람된 말, 무지한 말, 상술적인 말, 임기응변으로 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 를 못 편다. 가령 <금>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다른 것은 못 섞듯, <섭리사 말씀>도 그러하다. 다른 말을 섞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시고 뺏으신다.

5. <섭리역사 40년간 외친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니,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9.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

1) 항상 자기에게 한 말씀인 것으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여겨야 합니다. 성경의 잠언을 아무리 읽었어도 그냥 글만 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한 말이라고 깨달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잠언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자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대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했으니 그것을 목에 걸고 지키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온 세계의 각 나라, 각 교회, 그리고 각 개인마다 금주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자기에게 한 말씀으로 늘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한 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한 사람에게 하나씩, 한 명씩 다니면서 못 전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전체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에게 가는 말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

내가 산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들어보라고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나 들어보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 들어보라고?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

그런데 자기 것을 못 들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 들으러 온 것입니다.

자기 개인에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 <말씀>을 ‘흥분 상태’에서 듣고 행해야 된다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 반복해서 듣고,
깊이 깨달으려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말씀이 궁금해서 빨리 듣고 싶은 단계>, <말씀이 기다려지는 단계>,
<말씀 듣기 좋아하고 기뻐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 단계가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말씀을 행하게 되고, <행하는 맛>도 알게 됩니다.

3) 설교를 하나님의 목시를 듣는다고 생각하며 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설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목시를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갈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하시오.”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이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누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때, 그때 정확하게 전화번호를 적는 것 같이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만 번 설교를 들어도 한 번 제대로 들은 것만 못 합니다. 만 번 전화번호를 불러 주었는데 제대로 못 들으면 헛일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선생님은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데, ‘제대로 못 들었구나. 제대로 실천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듣기는 제대로 들었는데 역시 실천을 못 하고 있구나.’ 합니다. 실천 안 한 사람은 일단 죽은 사람들, 실천한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예요.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신앙을 잘 하는 자다

1.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다. 하나님의 시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듣

고 행해야 된다.

2.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위치’에서 알고 행한다. 또 <기도>하면, 주가 영으로 혼으로 가르쳐 주어 알고 행한다.

- <설교하는 자>도, <설교를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정과 뜻’을 속 시원하게 이루게 해 드립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지켜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들’이 이뤄집니다.

-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귀>를 잘 알아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과 <감동 주신 것>을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맞춰서, ‘그때에 해당되게 선포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꼭 <말씀을 제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뜻’을 이뤄 드려야 됩니다.

5) 비유로 하신 말씀의 말귀를 잘 알아 들어야 한다

3.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가 성경에 비유로 하신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제’로 생각하고 행한다.

4.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리 떡’은 실제로 ‘보리로 만든 빵’이다.
그러나 한국 성경은 ‘떡’으로 번역되었다.

5. <이스라엘의 떡 개념>과 <한국의 떡 개념>이 실제로는 다르다.

6.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어떤 뜻’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7. <비유로 하신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8. 어느 때는 아프다고 말하니 ‘육적으로 아픈 것’만 생각했고, 어느 때는 ‘영적인 것’을 두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육적’으로만 알아듣고 행했다. 그러니 주님의 심정이 답답했다.

6) 말씀을 확실하게 배워야 한다

성경의 골격을 제대로 배워 모르는 자에게 주장하고 강의할 정도로 30개론을 배워야 됩니다. 신학을 나왔는데도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각종 목회를 안 해도 말씀을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골수에 깊이 담겨 있어야 환난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자들이 개인의 환난 때나, 섭리의 환난 때 넘어집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박히지 못하여 바람이 불 때 넘어지듯이,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도 말씀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배울 자들은 꼭 다시 깊이 배우도록 하기 바랍니다. 은혜만 충만하여 따라오는 신앙들은 위험합니다.

말씀은 전쟁터에서 좋은 무기, 강한 무기과 같고 전쟁터에서의 갑옷, 방탄복과 같습니다. 역사론과 4대 교리의 핵심과 골격의 말씀은 누구든지 머리에 암기하고 다녀야 하며, 목걸이로 걸고 다녀야 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가 전쟁터에서 총도 무기도 없이 치마만 입고, 양복만 입고 다니면 마음이 놓이겠어요? 무장을 하고 다녀야 사탄과 인(人)마귀들을 이기지 않겠어요? 오늘도 생명의 근본 말씀을 들으니 확신이 서게 되지요? “철강 같은 믿음은 확실한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습니다.(롬 10:17) 시

대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각 개인도 말씀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월명동에서 돌을 빼면 보잘 것 없듯이, 섭리사가 말씀에 약하면 보잘 것 없습니다.

7) 설교 듣기 전에 성경을 많이 자세히 읽어야 된다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을 많이,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야 ‘이단의 이론’에도 속지 않고,
‘성경을 그릇되게 푸는 자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게 됩니다.

8) 말씀을 귀히 듣고 행해야 한다

주일말씀, 수요말씀, 잠언, 성령 사언 계시 말씀들을
귀히 듣고 행하여라.
내가 전한 말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교육국에서 온 교회에 다 전해서 모두 완전히 알고 하여라.
근본 된 시대 말씀의 골격을 모르면,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른다.

9) 말씀을 듣고 전할 때, 간절해야 한다

말씀을 받는 데도, 말씀을 듣는 데도, 말씀을 깨닫는 데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먼저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해야,
성령에 감동되어 합당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설교자들은 <말씀의 근본>을 깨닫고
<말씀을 주신 자와 성령의 심정>으로 설교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10) 행하면서 배워야 한다

◇ 행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 주지만 해도 말씀을 잘 모릅니다.
행하면서 배워야, 이 시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의 뜻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룹니다.

◇ 제대로 가르쳐 줘어도 제대로 안 배우면
제대로 실천을 못 하니 육도 혼도 영도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 믿음이 완전하려면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11) 말씀을 배웠어도 거듭해서 배워야 한다

늘 말씀을 밥먹듯이 들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밥을 안 먹는다면 한 두끼는 괜찮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보면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생기게 되고, 중국에 가서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하여서 생명을 잃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한두번 예배 안 드려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한두달 계속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했습니다.

7. <말씀>을 배웠어도 거듭해서 배워야 된다. 대개 ‘어렸을 때 배우는 것’과 ‘커서 배우는 것’은 다르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특히 역사를 자세히 배우고 알아야 ‘신앙의 흔들림’이 없다.

8.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살라.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된다.

12) 말씀을 정확하기 ‘받기, 전하기, 이해하기, 실천하기’

- 말씀은 <받는 자>가 ‘정확하게 받기’, <전하는 자>가 ‘정확하게 전하기’, <듣는 자>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듣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정확하게 실천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역사>,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되어, 차원 높여 살아가게 됩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홀로 집 한 채를 짓는 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은 ‘천 년 만’에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2000년 만에 풀어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13) 말씀을 기록하고 기록해 둔 것을 보아라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100년이 가도록 안 잊을 것 같아도,
어느 때는 듣고 10분도 안 돼서 잊기도 한다.

잊었어도 ‘잊었는지 모르는 자’도 있고,
잊은 것을 알아도 ‘내용’을 기억 못 하는 자도 있다.

16. 설교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들은 것이 다 생각나니 거의
그대로 다 말한다.

그러다 하루, 이틀이 가면 뇌에서 잊어서 ‘핵’만 덩성덩성 생각난다.
그러다 아예 ‘핵’도 잊는다.

이같이 지난날 ‘삼위에 대한 말씀’과 ‘그 중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
어도 점점 ‘생각’에서 잊는다. 몇 개만 알고 있다가 결국 그것도 잊는
다.

그래서 <휴거>도 실패한다.

<기억>에서 잊으니, 성공할 것도 실패한다.

17.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해 온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 많은 일들을 했어도, 지금은 수만 가지 중에 몇 가지씩만 생각한다.
다 잊어서다.

이같이 현재에 속한 시간이 지나가면 잊으니, 기록하여라.

그리고 기록해 둔 것을 보아라.

10. 말씀 잘 가르치고 전하기

1)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게 해 주려면,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2) 시대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게 가르쳐야 한다

배울 때,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확실히 인식되지 않은 것은 배웠어도 안 배운 것과 같습니다.

<시대 말씀>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교육’ 이고 ‘사명’입니다.

가르쳤어도, 아직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확인하고 또 가르쳐서 제대로 인식하게 해 줘야 됩니다.

3) 말씀을 전할 때 두가지 방법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말씀을 진지하게 전해 주고 감동을 주어 깨닫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마치 양떼를 푸른 초장에 끌고 가듯 말씀을 전하며 이끌고
가는 방법이다.

4) 강의도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

35. 옛날식으로만 하면 힘들다. <전도>도 <가르침>도 <기도>도 <목회>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섭리를 개발하는 일>도 모두 ‘최고 차원의 높은 방법’으로 해야 쉽게 된다. 최고로 발달된 시대이니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옛것과 옛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36. 많이 하려고 오래만 하지 말아라.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해야, 많이 하고 쉽게 한다.

37. <전도>도 <강의>도 <경제>도 <자기 할 일>도 연구해라.

전도도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여 ‘강의’를 잘해야 쉽게 된다.

경제도 주 안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38. 하나님이 ‘각종 삶의 구상’을 주셔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더 연구하고 좋게 해야 된다. 신앙도 삶도 그러하다.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하면 더 힘들고, 해 놓고도 후회한다.

5) 예수님 설교법

- 선생님이 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원본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살피느라 너무 바쁘시니까,

나에게 ‘짧막한 설교 하나’만 해 주세요.” 하고 졸라댔습니다.

- 예수님은 <설교 하나>를 해 주겠다고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났다.” 하셨습니다.

<원본 말씀>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 그런데 ‘그 한마디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설교>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한~참 동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원본 설교>를 들으려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그 후에 예수님께 또 설교해 달라고 하니,

“〈내가 설교한 말씀〉을 네가 소리 내서 읽고, 들어 보아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으로 읽다가,

감동이 되어 그렇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도 계속 읽어 보고,

〈하나님의 설교〉도 들어 보자고 하며 ‘구약말씀’도 읽어봤습니다.

•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음성’으로 외치셨는지 알고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때는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고,

힘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소리를 지르고,

책망을 하면서 듣는 자들을 깨우쳐 주기도 하셨고,

어느 때는 조용하니 ‘잔잔한 호수’처럼 외치기도 하셨고,

어느 때는 ‘태풍’같이 외치기도 하셨고,

어느 때는 ‘봄바람’같이 외치기도 하셨고,

어느 때는 ‘여름철 소나기’처럼 외치기도 하셨고,

어느 때는 ‘겨울철 차가운 북풍한설’같이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설교법〉을 많이 배웠고,

지금은 〈성령님의 설교법〉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설교〉를 들어보면, ‘내용’은 다 같지만 ‘능력’에 따라, ‘실력’에 따라, ‘개성’에 따라 ‘기도하여 은혜받은 것’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립니다.

〈제스처〉, 〈음성〉, 〈심정〉, 〈얼굴 표정〉, 〈진지하게 하는 말〉, 〈표현력〉에 따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르게’ 들립니다.

• 〈설교〉를 잘해 줘야, 〈듣는 자〉가 ‘은혜’가 충만하고, ‘감동’을 받고,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6)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전해야 한다

◇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이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뜨거운 말씀이었다고 하며 그냥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전도하고 약한 신앙인들을 힘 있게 잡아 줄 정도로,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 최고로 귀한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셨어도

외치는 자가 자기 식으로 육적으로 전하면

듣는 자는 진리와 사랑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못 느낍니다.

말씀은 같으나, 전하는 자에 따라 능력이 나갑니다

전하는 자에 따라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케 됩니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설교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고 슬기롭게 증거하며 잘하는 자는 큰 교회로 보내고, 더 큰 사명을 준다.” 하셨습니다.

◇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시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며 전하여 많은 자들이 전도되어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니 설명과 증거를 잘 해야한다

- 이렇게 ‘설명’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서로 오해하지 않게 하나하나 잘 설명해 줘야, 이같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됩니다.

-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러합니다.

말 한마디로 운명이 좌우되니, 한마디도 이상 없이 풀어 줘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는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8) 어떻게 구상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 오늘도 내게 배우고, 그대로 전해 줘서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을 사망권에서 천 년 역사 생명권으로
오게 해 줘야 합니다.

◇ 같은 생명의 말씀이라도 어떻게 구상하고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믿고 이해되느냐, 안 믿고 부정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좌우됩니다.
초급, 중급, 상급으로 순서 있게 늘 가르쳐 주라고
예수님은 선생에게도 가르쳐 주시며, 행하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9) 말씀을 정밀하게 가르쳐라

- 의사가 정밀하게 사람의 지체를 가르치듯, 시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 예수님은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고로 가르치며 알게 해라 (요5:39).”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히 보고, 자세히 가르쳐라.” 하셨습니다.

10) 말씀의 주인의 입이 되어, 사명감의 갑옷을 입고 가르쳐야 된다

◇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항상 말씀의 주인의 입이 되어
‘사명감의 갑옷’ 을 입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는 자가 화살을 쏘도, 벌같이 쏘도 놀라지 않고 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11) 자세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섭리사에 일찍 온 사람들>은 많이 잊어버렸고,
<이제 온 자들>은 잘 모르니
어린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듯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세히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12) 행해야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좋은 것은 이 순간에 못 가르쳐 준다.
점차적으로 배워 가야 한다.” 하셨습니다.
설교를 해 줘도 1~2시간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약의 좋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데
지금까지 걸린 시간은 6000년이나 됩니다.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할 것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 하는 자는 그냥 안 하는 대로 세월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행해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 것을 알려 줬으니, 매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11.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여라

1) 말씀을 행할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1. 아무리 생명이 죽음에서 사는 귀한 말씀이라도, 생각에서 잊으면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죽게 되나니, 생각에서 잊지 말고 지키려고 결심하고 정녕코 행해야 되느니라.
2. 말씀을 지킬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3.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잘못은 온 세상 사람들이 와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켜 행해야 되고,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해결해야 된다.

2) 말씀을 들으면 잊지 말고 매일 지켜 행해야 한다

매일 주는 말씀을 귀히 보고 듣고,
그동안 말씀 들은 것도 모두 매일 지켜 행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리니, <말씀>이 곧 ‘생명’ 이니라.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생명권’ 에서 무너지느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즉시 행하여라.
<명철한 지혜>이니라.
항상 가르쳐라. 그리고 항상 배워라.
그리고 행하여라. 그리고 얻고, 쓰고, 누려라.

3)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었어도
말씀이 생활화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 하시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육신의 눈같이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시대의 눈을 뜨고, 지식의 눈을 뜨고, 학문의 눈도 뜨고, 철학의 눈도 뜨고, 또 나아가서는 은혜의 눈도 뜨고, 말씀의 눈도 뜨라는 것입니다. 눈뜬 사람이 더 보게 되고, 더 느끼게 되고, 더 희열을 느끼게 되고, 눈을 뜬 사람이 더 많이 느낍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일단은 보는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눈뜬 사람이 더 많이 보듯이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생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건더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 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애기를 하고 사랑치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울리는 썰과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실천해야 합니다. 이론은 은, 실천은 금입니다.

4) 말씀의 체질화 생활화

말씀 오래해서 뭐합니까? 한마디를 들었어도 실천을 안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체질된 것 많잖아요?

밥은 별식이나 떡보다는 씹박하지 않습니다. 밥은 어떤 특수한 냉면보다는 헐합니다. 그러나 별식은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 먹고 날마다 떡만 먹으면 똑같은 쌀인데 질려버립니다. 그러나 체질화되면 덜하지요.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시험 받도 안 받습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만큼 변화된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어서 ‘한 번’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해 주면, 어느 정도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만큼

- ‘차원’이 높아지고, 영도 육도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높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6) 말씀으로 답을 알았으면 즉시 해야 된다

◆ 새벽 1시에 성령이 깨워 주시는데도 못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에서 깬데 10초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수면 상태에 있어서 또 자게 되어 기도에 실패한다.” 하고 깨닫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 이 답을 받고 다음 날에는 잠에서 깬 후 10초 안에 즉시 일어났더니, 성공했습니다!

<답>을 깨닫고 실천하니, ‘문제가 해결’ 됐습니다.

◆ 그래서 깨닫고 <답>을 알았으면, 즉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깬 때든 즉시 일어나야, 수면 상태를 벗어나고 기도하여 성공합니다.

깨닫고 생각났을 때도 즉시 해야, 기억력이 사라지지 않고 행하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꼭 해야 될 일>은 ‘그때’ 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 할 일>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 중하게 들린다.

그러다 뜨거운 물이 식듯 생각이 식으면 ‘하고 싶은 생각’도, ‘필요성’도 서서히 흐려진다.

고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행하여라.

7) 말씀대로 해야 그것이 답이다

46. 하라고 했으면, 해라. 해야, ‘답’이 온다.

47. 한번은 성령님께 한 생명을 두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지 물으니, 계속 편지해 주라고 하셨다. 편지를 해 줘도 안 된다고 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끝까지 지켜라.” 하셨다. 고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계속 편지했더니, 그 생명이 방향을 돌리게 됐다. 하라고 했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답’이다.

48. <답>은 ‘자기가 할 일’을 가르쳐 준다.

49. 가령 쌀이 없다고 하면, “농사를 지어라.” 혹은 “일을 해라.” 한다. 안 하면, 얻지를 못한다. 삼위는 ‘방법’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줄 것’을 주기도 하신다. 때마다 합당한 대로 하신다.

50. 삼위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진정으로 해야 된다. 물에 빠졌으면, 물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다.

또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8) 말씀을 듣고 행해야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

14. 깨달아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자’가 된다.

15. 엄밀히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자>와 <소유한 자>는 다르다. 소유해야 ‘자기 것’이 된다.

16. <가지고 있는 것>은 ‘과일 밭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은 ‘과일을 먹는 것’이다.

과일을 먹으니, 살과 뼈에 영양이 보급되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17. <말씀>도 듣기만 하면 ‘가진 자’다. <소유하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음식을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듯, 말씀이 완전히 자

기 것이 된다.

18. <휴거>도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 행해야 음식을 먹고 살로 변화되듯, <영>이 변화되어 휴거를 이루고 ‘영원히 소유하는 자’가 된다.

9) 말씀도 계속 행해야 차원이 높아지게 된다

21. <자기 영>도 ‘끝없이 변화’ 된다. <부활>도 ‘더 좋은 부활’, ‘보다 더 좋은 부활’로 한없이 이루어진다. <자기 생활>도 ‘더 좋은 삶’이 무한히 있다. 깨닫고 행하여라.

22. <기도>도 한두 시간 기도하고 ‘더 기도할 것’이 없어서 끝냈는데, 더 기도하니 ‘또 다른 차원의 깊은 기도’를 계속하게 됐다. 얼마나 더 기도하게 됐을까? 1년, 2년, 10년, 30년, 일생 동안 계속 기도하게 됐다. 수십 년 후에 오니, <지금의 기도>는 ‘어렸을 때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이 심정 깊고, 차원 높았다.

23. <말씀>도 이전 말씀에서 계속 차원을 높이니, ‘끝’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 되었을 때, ‘끝이 없는 무한한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12. <성경>에 대하여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가장 신앙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성경의 31062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31062절의 성경 말씀, 이 시대 성약 4만 잠언... 끝이 없다.

들어도 금방 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의 법>을 주셨다.

-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라.

2) 성경은 하나님의 ‘뜻’ ‘사랑’ ‘구원’ 이다

신구약 성경을 한 마디로 하면 ‘뜻’ 한 글자입니다.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결론은 <사랑>입니다. 결론 맺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근본은 ‘사랑’ 이에요.

“사랑을 이루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는데 최종 그 중에 사랑이 최고다. 결국 그 사람을 믿었을 때는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입니다.

성서를 두 마디로 말하면 ‘사랑’ 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구원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구원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살려 주는 것, 그리고 헐벗은 자를 다시금 입히고 먹이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육체적인 구원이고,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상천국을 이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해야 이룹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자고 우리가 지금 헛바닥을 깨물고 참고 견디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할 짓 다하면서 제 목적지에 못 갑니다. 이 것 저 것 다 자르고 가야, 필요하면 손가락까지도 자르고 가야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3) 성경은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 <성경>은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읽으면 저마다 차원대로 합당한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도 해 주신다.

◇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자가

많이 공부하면 많이 알기에, 그만큼 행하게 된다.

많이 배운 자는 많이 알고, 많이 행한 자는 많이 얻는다.

인생은 무지하다. 모르니 모르는 만큼 못 행하고, 무지로 지옥에도 가게 된다. 알면 아는 만큼 행하여 황금 천국으로 간다.

4) 성경은 생명의 책이며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 흔히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 알기를 선지자, 사도, 사역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감동을 주어 감시하시며, 쓸 것만 쓰고 써서는 안 될 것은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물과 실제로 되어 지고 있는 것들을 감동을 주어 은밀하게 쓴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행하시

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쓰게 한 생명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가서 직접 보여주어, 보고 와서 하나하나 쓴 것입니다.

영계에 가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쓰는 자들이 그냥 은혜를 받고, 그 감동으로만 썼다면 하늘나라에는 그 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영이 사망으로 가서 지옥에 간다는 성경 구절을 보았는데도 보통 읽고 지나갑니다. 영계에 가보면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영계에서 직접 보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감동시켜 쓴 것을 알고,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큰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1절에 사도요한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요한은 직접 보고 성경을 썼습니다. 못 본 자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실감 있게 믿어야 신앙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누가 천천히 읽어 봐요. 그냥 감동으로 쓴 글이 아니라, 그 곳에 가서 직접 보여주어 본 것을 그대로 쓴 구절입니다. 이 세상보다 못하게 천국을 만들어놓았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대로 있다고 확신하고 읽어야 기쁨이 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마음에 솟아나고, 꿈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도 믿을 때 더 기쁜 것입니다.

5)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으로 녹음되어있는 테이프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묵시와 암시와 징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으로 녹음되어있는 테이프(TAPE)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문학으로 녹음되어있는 문학적인 테이프입니다. 하나님의 녹음 테이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들어보려고 하니, 읽음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읽음으로 들어보라!

성경은 모든 전체에게 목시를 준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전체에게 목시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싶거든 , 이해하고 싶거든 성경을 읽어라.

6) 성경은 목숨 걸고 고통을 겪으며 순교해 가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성경은 목숨 걸고 고통을 겪으며 순교해 가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또 극한 환난 가운데 옥중에서, 혹은 산속에 들어가 굶고 쓰러지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런데 왜 제 생각대로 빼고 더하여 가르치느냐. 편한 시대에 살면서 편히 방 안에서 성경도 주일말씀도 다시 읽어 보지 않느냐.

7) 성경은 한마디씩만 했다. “해라” “하지 마”

성경에 <수만 가지 법>을 일일이 다 안 쓰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 하고 한마디씩만 하셨고

<해야 될 것>은 “해라.” 하고 한마디씩만 하셨다.

어떤 것은 “이런 것은 행하면 다 죄다.” 하셨고,

어떤 것은 “저런 것은 다 행해라.” 하셨다.

성경에 다 못 쓰니 <양심의 법>을 주어, 사람이 매일 어디를 가나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고 지키라고 하셨다.

8)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선조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더욱 마음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도 계속 그같이 행하심을 실제 체험하기 위해서이다.

•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을 중시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율법>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교훈>을 중시
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율법>을 중시하여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인들은
<사람>인 ‘예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고,
자칭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라고 하며,
자신을 ‘신격화’한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폐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언을 이루어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 <구약> 위에 ‘신약’이 세워졌고,
<신약>의 터전 위에 하나님은 또 ‘약속’을 이루시니,
<성경>을 알아야 ‘시대 말씀’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6000년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이 시대의 역사를 귀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어 보기 바랍니다.

9) 성경은 자세히 세밀히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으려면 자세히 읽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부활에 대해 근본을 알려면 성경에 나온 부활에 대한 성구를 다 모아 놓고 읽어 보고 기도해야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심판에 대한 것도, 말세에 대한 것도 모두 그와 같이 성경을 보아야 된다.

성경은 모순 없이 쓰고 말했으나 몇 구절만 중심하여 보고 주장하니 서로 싸우고 배척하고 미워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냐. 이 시대 말씀도 그러하다. 성경의 부분적인 몇 절만 성경의 주인이 말한 것이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모두 동일한 나의 말이다.

10) 성경을 읽어도 끝까지 읽어야 하고 말씀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

<각종 모든 것>은 모두 ‘끝’ 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여야 ‘목적’ 을 달성하여 ‘희망’ 을 이루고

‘끝까지 행한 보람’ 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끝까지 안 하면> 과거 수고가 ‘헛수고’ 로 끝나고,

‘손해’ 만 가게 됩니다.

특히,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행하며 관리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처음에서 나중’ 까지 읽고

<기도>를 하여도 정한 시간 ‘끝까지’ 해야 됩니다.

11) 성경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고 답이 있는 곳이 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6000년 간 역사를 펴 오면서

‘개인’ 과 ‘단체’ 와 ‘민족’ 이 환난 때 어떻게 행했는지 나온다.

<성경>에 ‘답’ 이 많다.

성경을 보면 아무 곳이나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는 문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곳에서는 의문만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 장소를 파헤치며 답을 찾는 것입니다

금이 아무데서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다보면 금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문제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다보면 땀한 곳이 있듯이 가다보면 딱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곳에서는 문제를 찾고, 답있는 곳에서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골치 아프다고 다 버리면 답이 안 옵니다. 문젯거리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는데 문제를 피하면 답이 있어도 답이 아닙니다.

“2더하기 2는 얼마일까?” 문제가 있으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냥 갔는데 가다보니 4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습니다. 그런데 4를 찾았어도 문제가 없기에 어느 것이 답인줄을 모릅니다. 머리 아프다고 문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환란을 받으나 기뻐하라.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라.” 한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면 답이 와도 답인줄을 모릅니다. 4가 있어도 어디에 해당되는 답인지를 모릅니다. 4라는 것은 3다음 숫자냐, 5전의 숫자냐, 2더하기 2의 답이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문제를 확실히 알고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만 갖고 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여자라면 답은 남자입니다.

12) 성경의 깊은 진리의 인봉을 떼는 것

10. <기독교>는 천 년이 가도 ‘이 시대 인봉’ 을 뗄 수 없다.

<성경의 인봉>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생활’ 로 떼기 때문이다.

11. <성경의 깊은 진리의 인봉을 떼는 것>은 껌 딱지를 떼듯이, 엿가락 들러붙은 것을 떼듯이 쉬운 것이 아니다. <실천>을 해야, ‘그 단계의 인

봉' 을 떼다.

12. 마치 '형겉' 으로 덮어 놓으면 바깥 세계를 못 보듯이, '백지장 한 장' 이라도 가려져 있으면 옆 세계를 못 보듯이, <영계>도 '그 차원' 에 오르지 않으면, 밑의 단계 밖에 못 본다.

26. <행한 역사로 성경을 푼다는 것>은 '행한 대(大) 공적(功績)으로 성경을 푼다는 것' 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 을 푼다.

27. <이론>만 알고, <답>만 안다고 성경을 푼다면,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무엇이 유익하시겠느냐.

28. <답>을 알고 행해야, '유익' 이 오고, '복' 을 받는다.

29. 노력하면, '일반적인 답' 은 안다. 그러나 행해야, '인봉된 큰 말씀' 을 안다.

13) 성경은 온전히 배우고 교정해야 된다

학자들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조명해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씀한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수백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주니 그같이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에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깨우쳐주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현실에 그같이 존재함을 보여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책을 쓰는 자들은 골격을 써놓고 수십 번씩 교정을 보아야 착오가 없습니다.

교정을 볼 때는 24가지 정도를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잘못 배운 것을 교정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에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배우고 교정해야 됩니다.

14)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였다

4. <성경에 비유를 들어 말한 것들>을 ‘비유’가 아닌 ‘실제’로 알고, 그것을 표적이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 ‘표적 신앙’을 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된다.
5.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자들이나 시험하려는 자들이 무엇을 물을 때나, 예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비유한 근본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6.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유대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이단시켰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7.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불신하고 이단시한 자들이 문자대로 주장하니,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지 못하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런데 기성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설교하고 가르친다.

15) 성경 푸는 법

한번은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성경구절이 자세히 나와 있노라”
 그래서 성경 펴서 한 바퀴 도니까, 거진 일주일 이상 읽었어요.
 그런데 읽어와 보니까 시작하기 전 구절에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뒤에 있어서 이렇게 봤으면 알았는데,
 한 바퀴 돌고서 거기 있더라니까?
 그 때 부터 “성경을 자세히 보라. 성경에 답도 있고 문제도 있다.”
 거기서부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리라’
 불 심판 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불사른다. 말씀이 불이다’ 라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 푸는 법 몇 가지가 있는데,

- ① <비유>를 풀 줄 알아야 될 것.
- ② <시대성>으로 풀 줄 알아야 될 것.

③ <때>로 풀어야 될 것.

④ <상징>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어.

16) 성경을 외골수로 풀면 안 된다

성경을 외골수로 풀면 안 돼요.

어느 때는 <영적>으로도 풀고, 어느 때는 <육적>으로도 풀고.

이것을 구분해서 딱딱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일테로,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 불’로 심판한 땅이에요.

왜 불로 심판했을까? 말로 심판해도 안들으니까,

결국 사랑 타락, 비원리적 세계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불로 심판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불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태풍으로,

어느 때는 가뭄으로. 어느 때는 안 되게 하면서, 어느 때는 지진으로,

어느 때는 병으로 쳤지요.

어느 때는 물이 피 되게 하면서 자연을 변동시키면서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로 심판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외골수로만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17) 성경을 푼 데서 새 역사를 폈다

24. <성경>도 못 풀면, 소용없는 책이다.

<성경을 못 푼 시대>는 ‘새 역사’를 못 폈다.

<성경을 푼 데>서 ‘새 역사’를 폈다.

25. <개인의 삶>도 ‘자기 인생’을 풀어야 제대로 펴 간다.

18) 성경을 허황되게 풀면 이뤄지지도 않고, 심판받는다

성경도 잘 해석하지 못하고 행하면 오히려 죄만 짓고,

그 죄의 대가만 받는다.

잘 해석하고 살면 그 대가로 희망을 이루고 기뻐하며,
그 영혼이 영원한 황금성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19)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데> 있어서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13. ‘성경’ ‘말씀’ 에 대한 성경구절

신 6:5~9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잠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 21:4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 22:29~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 26:54~56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막 12:9~10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막 12:24~2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막 14: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눅 24:25~27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31~32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눅 24:44~45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 2:19~2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육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삼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7:37~39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10:34~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 17: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행 17:2~3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행 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하므로

롬 1:1~4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전 15: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갈 3:8~9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 3: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벧후 3: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4. 잠언에 대하여

1) 잠언은 삼위일체와 대화의 말씀이다

<잠언>은 ‘삼위일체와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고로 <한마디 잠언>은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잠언 한 개>는 ‘금덩이 하나’다.
<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이다.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얻어 본 자만 안다.
잠언 그대로 행하면, 자기도 ‘금덩이’ 같은 ‘실체’를 얻는다.
어느 날은 잠언을 받고 그대로 행해서 ‘실체’를 얻었다.
모두 보고 감탄한 것들이다.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면, 얻는다.

<시대 5만 잠언>은 ‘지식의 근본의 말씀’ 이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식’도, ‘그에 해당되는 땅의 지식’도 있으니, 많이 읽도록 하여라. 지금까지 2만 번 이상 해 준 설교도 모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 이니라.

- ◆ 이제 기도한다고, 잠언을 그만 받았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만 받으려면,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자꾸 잠언이 쏟아져 나온다.” 하셨다.
몰라서 답답해서 물었는데
그 말에 하나님이 답하시니, 그 <답>이 ‘잠언’이 되었다.
- ◆ 몰라서 답답하니 묻고 싶고,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어 알게 되니,
잊지 않으려고 ‘잠언’으로 썼다.
어느 때는 잠언 100개, 150개를 쓴다.
그러면 여섯 시간씩 써야 되니, 힘들다. 그래서 궁금해도 안 물었다.

물어보면 ‘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안 쓰니 금방 뇌에서 사라졌다.
 나만 순간 답을 받고 끝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
 잠언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라.
 <잠언>은 ‘삼위일체와의 대화의 말씀’이다.
 <비유의 말씀>이니, 풀어야 된다.

2) 사람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26. 앞의 잠언을 다 쓰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마디 말씀하신 것’을 두고 계속 잠언을 쓰고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27. <잠언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 쓸 수
 가 없다. 그러면 ‘잠언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풀어서 써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다. 다른 말이 된다.
28. <하나님의 말씀>은 ‘천 가지’를 ‘한 마디’로 하시면서 천 가지
 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면, 한 가지만 깨닫게
 된다.

3) 잠언은 이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며, 교훈과 지혜의 말씀이다

<잠언>은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의 말씀’이다.

83. <잠언 하나>로 ‘설교’가 나오고,
 <잠언 하나>로 ‘운명’이 좌우된다.
84. 어느 때는 <꿈>으로 ‘잠언’을 주신다.
 꿈에 ‘혼이나 영이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다.
85. 한번은 <꿈>에 ‘내 혼’이 풀을 베고 있었는데,
 마치 잔디 깎는 기계로 깎듯이 반듯하게 베고 있었다.

요즘 ‘육’이 확실하게 행하니, 육신의 행위에 따라 보인 것이다.

86. 또 한번은 <꿈>에서 ‘내 혼’을 보니,

비가 오는데 퇴락한 옛집에 들어가 있었다.

꿈에서 깨서 성령께 “내가 왜 퇴락한 집에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게으르면 서까래가 퇴락하고 집이 샌다고 한 잠언이 있지 않느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시간을 끌기에
퇴락한 집을 통해 게으름을 보인 것이다.” 하셨다.

4) 한마디 잠언 속에 천 마디가 들어있다

1. <전도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전도서의 잠언>에는 ‘인생이 패하고 승리하는 원인’과 ‘인생을 사는 방법과 처세’에 대해 말씀했다.

2. <잠언>은 ‘지혜의 글’이다. 여러 번 깊이 읽어보아야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다. 비유를 들어 말하였기 때문이다.

3. <잠언>을 읽기만 하면, 마치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의 제목’만 읽는 것과 같다. ‘해석’을 해야 된다.

4.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움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다.

이 한 구절을 각종으로 깨달으면, ‘한 권의 책’이 나온다.

5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는 조언할 때 <한마디 잠언>을 준다. 그 한마디 속에 ‘천 마디’가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깨닫고 <잠언의 말씀>을 귀하게 보고, 기도하고 깨닫고 행하여라.

52. 어느 때는 3시간을 기도해도 잠언 <하나>를 주신다.

‘왜 잠언을 하나 밖에 안 주시지?’ 했는데,
그 잠언을 풀어보니 ‘잠언 20개’가 나왔다.

5) 잠언은 이치와 지혜의 말이요 지식의 말이다

48. <잠언의 내용>을 깨닫고, 그 ‘오묘하고 신비한 맛’을 알아라.

49. <잠언>은 ‘책’과 전혀 다르다. <책>은 ‘전체’에 ‘하나의 내용과 뜻’이 나타나도록 쓴다. 반면, <잠언>은 축소시켜서 ‘한마디’로 전체를 말하면서 “이와 같이 모두 이러하다.” 한다. 혹은 ‘비유’로 쓰기도 한다. <잠언>은 ‘이치와 지혜의 말’이요, ‘지식의 말’이다. 확실하고 명철하게 ‘한마디’로 답을 준다.

50. <잠언>을 쓸 때는 표현상 돌려서 쓰기도 한다. 가령 <금단의 열매>를 표현할 때 어느 때는 ‘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표현하려고 ‘밥’이나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숨겨야 될 것은 ‘돌’이나 ‘나무’로 쓰기도 한다. <기본적인 것> 외에는 그것을 준 자와 쓴 자밖에 모른다. 잠언으로 나갔어도 모르는 것이 많으니, 문자로만 본다.

6) 잠언은 문학적인 말씀이다

<잠언>은 ‘하나의 문학적인 말씀’이다.

고로 하나님은 잠언을 주실 때 군더더기 없이 ‘한마디’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답을 주셨으면,

그다음에는 왜 그러한 잠언을 주셨는지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이 성경도 ‘답’을 받으려면,

‘성경의 문제’가 무엇인지 많이 읽어 봐야 된다.

7) 잠언은 생활에서 쓰는 각종 기구와 같다

46. <잠언>은 ‘생활에서 쓰는 각종 기구’와 같다.

생활에서도 그때마다 해당되는 기구가 필요하듯,

잠언도 그때마다 필요한 잠언이 있다.

47. 어떤 잠언은 내용이 ‘불편’과 같아서 글을 쓸 때만 필요하다.

또 어떤 때는 볼펜이 글을 쓸 때뿐 아니라 다른 데 각종으로 쓰여지듯 잠언도 다양하게 각종으로 쓰여진다.

<잠언>은 쓰일 곳에 쓰일 때 ‘문제의 답’ 이 된다.

8)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 읽고 행하면서 보면 기쁘고 흥분된다

<뇌가 반응하는 강도>가 낮고 <감각>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을 쥐도 못 느낍니다.

마치 - <병든 자>에게 ‘진수성찬’ 을 쥐도 맛을 못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도 <잠언>도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

50번, 100번씩 읽고, 행하면서 보면

정말 기쁘고 흥분되어 - 마치 ‘사랑을 느끼는 것’ 과 같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 되고,

“아멘!” 소리가 억제하지 못하게 저절로 나옵니다.

“깊은 말씀을 주세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도록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말고,
먼저 자기가 ‘깊이 기도’ 하고 ‘병든 생각’ 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맛’ 이 납니다.

9) 새벽에 잠언을 귀히 들어야 된다

어떤 귀한 잠언의 말씀에는

세상의 비밀의 말씀도 들어 있고,

미래의 비밀의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새벽에 잠언을 귀히 들어야 됩니다.

10) 자꾸 깊이 읽고 들어라

설교 말씀이나, 계시 말씀이나, 잠언 말씀이나
 그 말이 그 말같이 반복된다고 건성으로 읽거나 듣지 말아라.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실상은 <더 차원 높은 말씀>이다.
 자꾸 깊이 읽고 들어라.
 설교 말씀이나, 잠언이나, 계시 글이나, 노래나 비슷해 보여도
 모두 <실천>해야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알게 된다.
 전의 것과 ‘기본’은 같아도 ‘핵’은 다르다.
 말씀이나 계시는 ‘적어도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는 읽어봐야’ 내용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내용이 깨달아진다.
 그리고 ‘행해야’ 왜 그런 말씀이나 계시가 나왔는지 알고 실천하여,
 때가 되면 얻는다.

11) 말씀과 잠언을 많이 쓰고 듣고 읽어야 성공하고 승리한다

말씀과 잠언도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말씀을 ‘조금’ 쓰고, 듣고, 읽으면,
 배고플 때 몇 숟가락만 먹는 격과 같아서
 효과도 별로이고, 힘도 없습니다.

12) <5만 잠언>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지금까지 <5만 잠언>을 쫓아도
 말씀 따로, 생활 따로 보니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기 생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13) 잠언으로 사탄도 악도 이기고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선생과 섭리사를 돕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5만 잠언을 써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주어 읽고 행하여서 사탄도 악도 이기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5. <말씀> 사연과 실천

1)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오늘 신입생들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안가지고 왔다면 내가 봉독할테니 잘 듣고, 다음부터는 성경을 꼭 사야 됩니다. 군인이 싸움을 하려면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총을 가지고, 그리고 명령할 자를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옛날에 성경을 살 때 너무 너무 어렵게 샀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리를 퍼다 내서 샀습니다.
내가 성경을 사기 전에는 성경이 너무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성경을 몇천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맛을 알고부터는 백만 원 줘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귀한 것을 알고 어느 책보다 이 책을 사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성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큰 성경도 있고, 전쟁터에 가지고 다녔던 포켓용 성경도 있었고,
외우면서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었고, 교회에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있었고, 단상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암송용 성경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쪽 복음이라고 합니다.
산에 나무하러 갈 때는 간편하게 마태복음만 혹은 누가 복음만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못살지라도 한 가지만이라고 꼭 사야 합니다.
교회에 가지고 다니는 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20년 동안 산에서 성경이 닳아 떨어지게 읽으며 배웠다

◇ 선생은 역사를 펴기 전에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성경을 다 풀고, 역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존재도 가르쳐 주셨고, 영계에 가서 보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역사라 삼위체에 관한 인봉도 떼고, 성자 인봉도 예수님과 쪼개서
떼고, ‘그 날에는 확실하게 말하리라.’ 한 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이 20년 동안 산(山)기도 하면서
성경책 33권이 닳아 떨어지게 읽으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께도 배우
고,
성자와 하나님께도 배웠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정말 사람은 모르고 살다 죽는구나.
세상도 모르고, 영의 세상도 모르고 살다 죽는구나.’ 하며
인간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3) 성경, 말씀의 최고의 경력

‘2만 번의 설교’, ‘5만 잠언’, ‘시 3500편’,
‘10년 동안 쓴 불펜만 4000자루’,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써 놓은 원고는 작은 방 하나 가득’ 입니다.
<성경>을 2000번 읽고,
‘200여 군데에 그릇되게 푼 곳’ 을 제대로 풀어 전해 줬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력’ 입니다.

4) 5300번씩 기도하며 구했다

나부터도 만일에 내가 기도를 안 했다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앓았다면,
“구하면 주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 하셨는데도 만일에 내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

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 신세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지금 ‘이 신세’ 는 안 되었을 줄로 압니다. 아마 ‘저 신세’ 가 되지 않았을까. 저들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아, 저들은 누구지요?” 저 기성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았을까. 그 같이 생각을 해보며 서론 말씀을 하고 싶어요.

‘만일 내가 구하지 않았으면, 만일 내가 찾지 않았으면, 만일 내가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으면 그 신세는 그대로 기성시대 사람들과 똑같지, 다른 점이 없었을 것이다. 야, 그러니 구한 것이 잘했다.’

그럼요. 그렇게 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구할 때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지요? 5300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5300번하면 몇 년 걸려요?” 몇 년이 됩니까?

기도하고 또 끝나고, 또 기도하고 끝나고 이것을 5300번씩 했습니다.

구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찾은 것은 찾을 때까지 찾고 돌아다녔고.

하늘 진리의 말씀을 찾은 것을 얼마나 찾았는가 하니, 마치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에서 바늘을 떨어뜨렸어요. 아프리카 지역의 밀림에다. 그것을 찾은 것만큼 힘들게 찾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떨어뜨렸으니까 분명히 있다.’ 그렇게 어떤 것을 찾을 때는 찾았습니다.

모두 이 역사 앞에 온 생명들은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하지요.

5) 공적을 쌓으면서 말씀을 배웠다

◇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생에게 가르치실 때, 선생에게 행하며 공적을 쌓게 하셨는데, 엄청나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 마음과 생각도 배우게 하시고,

또 종같이 그들을 섬겨 주며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인생 바닥에서 기어 다니면서 생명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며 예수님이 시대 말씀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하나 말씀을 가르쳐 주

셨습니다.

◇ 성경만 읽는다고 시대 말씀을 깨닫게 해 준 것이 아니고 거지와 같이 살기도 하며, 인생 바닥을 기면서 갖은 고통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이같이 3-4년 동안 거지와 같이 살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니까 신부 취급을 해 주셨고, 이 시대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신부, 사랑의 대상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 모두 이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자기가 신부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이론만 배우니 감동도 느낌도 없고,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 불쌍한 자, 병든 자, 거지들, 아픈 자들에게 종이 주인을 대하듯 그들을 위해 살아 주고 모시고 섬기면서 배웠습니다.

고로 예수님도 이같이 하신 것을 신약 때 활동하신 모습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6)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었다

선생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을 때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선생 3m 앞의 나무 뒤에 숨어서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그때 세상 그 어떤 자도 그 순간에 선생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 달라.’ 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선생은 그대로 행하여 살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죽음의 장소에서 살게 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같이 크다는 것입니다.

섭리사도 <시대 말씀>으로 인해 영원한 황금 천국으로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육신 일생도 누리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화복(禍福)이 좌우됩니다.

7) 잠언을 받게 된 사연

이런 잠언을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여주면서 받는 것입니다. 열 한 번째 잠언이 ‘작게 될 자는 눈으로 보고 즐거워 하 나 크게 될 자는 행동하여 실천하느니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잠언은 어디서 받느냐면, 창문을 열어 쳐다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창밖으로 지나가더라구요. 실제 가서 전도하면 크게 될 것이고 안하면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 속에서 보여 주면서 잠언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보여 주고 그리고 어떤 배경을 보여주면서 직접 내가 겪은 것을 통해서 잠언 하십니다.

잠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문해주신 것입니다. 혹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받아서 깨달은 것의 근본을 밝힌 내용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은 허무한 것도 많이 깨닫고, 보람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깨닫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될 것이 무엇인가도 깨닫고, 해서는 정말 안될 것도 깨닫고, 세상에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고 '아,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깨닫고, 이것저것 3000종류를 깨달았습니다.

나도 그 동안 깨달은 것을 적어봤는데 6000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잠언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된 것도 있고, 내가 겪고서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16. <월명동>과 말씀

1) 오직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기

- ◆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만들듯이,
<자기 뇌, 머리, 사고, 생각>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머리>를 만든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머리>를 만든 대로 ‘쓰고 행하게’ 됩니다.
- ◆ <월명동>도 ‘본래 구조와 틀’을 없애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었듯이,
<자기 머리, 사고, 생각>도 ‘자기 중심’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기’입니다.
그래야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 행합니다.
- ◆ <뇌, 머리>는 ‘생각’만 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성전 만들듯이 ‘하나하나 자신이 행함’으로 만들어집니다.

2)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연결시켜 사연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월명동에 가서

‘나무와 돌과 물과 땅, 그리고 만든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만 배우면
‘지식’에서 끝난다. 이는 ‘육적인 자’다. ‘주를 안 믿는 자’와 똑같
다.

<그것을 구상하고 만드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연결시켜 사연을
배우고 깨달아야

‘삼위’와 연결되어 소통하고 얻고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영적인 자’가 되어 무한한 것을 얻고, 육도 영도 형통하게 된다.

3) 말씀을 듣고 행하여 차원을 높여야 된다

- ◆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넓혀야 ‘차원’이 높아집니다.

<운동장>을 넓히려면, 먼저 땅을 닦아야 되지요?

이와 같이 <마음 그릇>을 넓히려면,
먼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행하여 닦아야 됩니다.

◆ 월명동 호수 쪽의 운동장을 넓힐 때입니다.

그쪽은 땅이 너무 깊어서

흙을 열 트럭씩 실어다 부어도 겨우 한 평이 넓어졌습니다.

한 평을 넓히기가 그리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트럭으로 흙을 실어다 채우며, 땅을 닦았습니다.

수천 트럭의 흙을 실어다가 채우니, 넓은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돌>도 수천 트럭을 실어다가 웅장하게 쌓았습니다.

<나무>도 수천 주를 심고, <꽃>은 만 포기 이상 심었습니다.

결국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현재의 자연성전>이 되었습니다.

◆ <자기 마음을 넓힐 때>도

흙으로 채워서 땅을 넓히듯 해야 하니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넓어집니다.

◆ <말씀을 듣는 것>은 흙을 트럭에 싣는 것과 같고,

<말씀을 행하는 것>은

흙을 트럭에 싣고 가서 땅에 부어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 월명동 운동장을 넓히듯, 야심작 돌을 쌓듯, 계속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를 ‘하나님이 거할 전’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몸>이 ‘삼위가 거하시는 영의 전’이 되어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 <자연성전의 큰 돌과 큰 나무>는

‘큰 말씀’과 ‘크게 행함’을 의미합니다.

<야심작>을 쌓을 때도 처음부터 차원 높게 쌓지 못했습니다.

<때>를 따라 차원 높여서 쌓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크고 좋은 돌들’로 최고로 좋게 쌓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차원 높일 때가 되면, <그때>를 따라 차원을 높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차원 높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때’를 따라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 월명동 야심작을 다섯 번째까지 쌓으면서 배우고
 여섯 번째에는 더 좋게, 더 높이, 최고의 하나님 보좌를 쌓은 것입니다.
 이같이 큰일도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라, 읽고 기도하고 행해야지만
 자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다.
 말씀도 계속 행해야, 차원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차원 높은 시대가 와서 허락한 말씀도
 더 차원 높이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르면서, 행하고 또 행해야
 쉽게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4)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표적이다

12.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하나님은 구상을 주시며 “이리해라.” 말씀
 하시고, 선생은 그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니 ‘표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표적’이다.
 삼위는 말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신다.

13. 사람들은 자기 인식으로 ‘안 된다.’ 생각하고 잘 안 한다.
 그러나 부딪혀서 해 보면, 쉬운 것이 많다. <생각>과 <실체>는 다르다.

5) 말씀을 볼 때는 축소 확대이다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축소판으로 보고, 확대판으로 봅니다. 축소, 확대입
 니다. 선생님은 옛날부터 기본이 축소 확대라고 했습니다. 삶에 대해서 개
 인을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
 소시킨 글씨는 작은 데에다 써먹고, 확대시킨 글씨는 작은 데에다 쓸 수가
 없어 큰 데에다 써먹습니다. 간판 글씨는 엄청나게 큰 글씨입니다.
 우리 섭리에서 제일 큰 글씨를 써먹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연성전에
 큰 글씨가 있습니다. ‘자연성전’이라는 글씨는 각 길이가 약 1미터쯤
 됩니다. 이와 같이 큰 글씨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큰 데에다 써먹는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볼펜으로 써가지고 와서 봅니다. 이와 같

이 축소 확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6)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 <희귀종 나무>가 ‘모양과 형상’ 이 특이하듯,
<자기>도 ‘희귀한 모양과 형상’ 을 가지고 있습니다.
- <희귀한 나무>는 <관리>를 안 해주면 ‘수형’ 이 바뀌어 버립니다.
<월명동 나무>도 20년 전에는 <거름>만 주고 <수형 관리>를 안 해 줬더니,
‘키’ 만 크고 ‘모양과 형상’ 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 이와 같이 <사람>도 관리하지 않으면,
<특성과 재능의 형상>과 <마음과 생각의 형상>이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 <작품술>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모양과 형체>가 어떻게 바뀌어 버리는지 볼까요?
-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은 2021년 9월부터 3달 동안
<소나무 3500주>를 가지치기하고 큰 가지들을 끊어서
<수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섭리사 모두>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작품술>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 <작품들>도 일부 보여 주겠습니다.
- 이와 같이 <자기>도 ‘희귀한 작품’ 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몸>도 ‘운동’ 해서 만들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행실>도
‘말씀을 듣고 실천’ 하여 만들기 바랍니다.

7) 두 개의 보물

- ‘월명동의 환경, 땅, 산, 물, 돌, 나무들’ 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입니다.
-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할 말씀’ 은 그보다 더 귀한 재산이며, 휴거되어

영생을 얻게 하고 황금성에 가게 하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 ‘이 시대 구원의 말씀, 휴거의 말씀, 잠언의 말씀’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는 가장 귀한 보물이며 영원한 재산입니다.

월명동에는 ‘두 개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육적’인 <환경의 보물>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시대 말씀의 보물>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환경과 만물의 보화>를 사용하면서
<시대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휴거되라고
우리에게 두 개의 보물을 주신 것입니다.